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조미영(연세대학교/연구원)

shalom0102@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 요청되는 기독교 평화교육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 및 교통체계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세계경제가 단일화 되어가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면에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양극화 현상, 다문화 상황, 환경의 위기는 평화 부재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현대 사회의 평화에 대한 도전과 요청에 기독교의 평화 이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기독교 평화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개념과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인한 평화 부재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특히 기독교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평화'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후, 세계화 시대에 요청되는 기독교 평화 개념과 평화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평화역량을 제시하며 어떻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평화로운 미래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의 목적은 자신, 타인, 세계 그리고 환경과의 평화로운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것이고, 교육 목표는 평화역량 즉,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교육의 분야에서 세계화 시대의 비평화적 상황들을 마주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기독교 평화 개념을 재조명하고 평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하계 통합 온라인 학술대회(2020년 8월 20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 주제어 》

세계화, 기독교 평화교육, 평화역량,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비평화적 요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20세기는 탈냉전이라는 세기 사적인 변화와 함께 막을 내림으로써, 21세기는 인류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향한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21세기는 미국에서의 9·11 테러 참사로 시작되며 테러와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인해 구조적 폭력의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안보의 명목 아래 시작된 전쟁 및 테러리즘의 위협과 핵무기 경쟁,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주의, 심화된 빈부격차, 생태계의 위기, 생명경시의 풍토 등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폭력의 문제들이다.

세계화 현상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크게 상호의존적인 국제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평화 문제와 함께 분쟁 문제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아와 빈곤, 정치적 소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자원의 점증적인 고갈, 국제적 긴장과 전쟁 등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세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지난 세기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계화는 비약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켰지만, 국가 수준, 글로벌 수준에서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되어 국제평화와 사회 안정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계화가 아

닌, 어느 특정한 인류를 위한 세계화, 즉 특정한 인류의 이익을 위한 표면상의 공동체 됨은 희생을 요구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 지구적인 비평화의 물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불어 한반도의 분단 상황,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은 앞으로 한반도가 걸어갈 길에 대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이전과는 달라진 관계로 변화되어가고 있지만, 분단은 여전히 한반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의 구조와 폭력의 문화에 노출된 환경으로 폭력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점차 평화에 대해 둔감한 의식구조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에 대한 요청은 더욱 시급하다. 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 등은 앞으로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평화 개념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세계화 시대와 평화 부재의 상황

1.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는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다양한 경영환경을 통하여 2000년

대 이르러 마침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자국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세계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단일정보권으로 묶게 하여 이러한 세계기업들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중심축은 경제·정치적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로 전환되었다(이재기, 2004, 36). 이처럼 세계화는 세계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단일의 규범, 기업경영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있으며 서로 윈-윈 하고 있다는 개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세계화’에 대한 학자들의 담론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다원적인 차원에서 세계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주로 기든스(Giddens, 2006), 로버트슨(Robertson, 1992), 벡(Beck, 2000) 등의 사회학자들은 세계화를 경제, 정치, 환경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각 개인의 사고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벡(2000)은 세계화, 즉 ‘globalization’을 ‘globalism’과 ‘globality’의 개념과 구별하고, ‘globalization’은 국민국가들과 그 주권이 초국민적인 행위자, 이들의 권력 기회, 정체성, 방향 설정,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주치고 서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국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지역 문화가 중요시되면서, 제3의 문화가 탄생된다고 보고 있다. 기든스(2006)는 세계화를 세계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들로 설명하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인 위성과 같은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접촉의 심화가 우리의 삶과 생활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는 ‘위에서부터’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Giddens, 1998, 71). 특히, 그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성의 현상과 연관성 속에서 세계화를 근성의 결과로 간주한다. 로버트슨(1992)은 백과 기든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개개인을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개인과 세계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화를 '아주 오래되고, 고르지 않은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언급했던 세계화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내포한 다양한 층에서 세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와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된 가설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들로 이루어지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통한 접촉으로 인간의 생활구조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개개인을 세계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한편,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로컬과 글로벌이 상반된 개념이 아닌 상호공존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2. 세계화의 문제점

세계화는 근대화의 긍정적 효과를 교통과 통신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통해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반면, 백이 주장하듯이 동시에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여러 측면들을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파급시킨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에서 거대한 풍요를 가져왔던 근대산업사회의 구조와 원리가 이제는 반대로 인류를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앙의 사회적인 근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장신근, 2007, 163). 세계화에 열광했던 것은 선진국처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 이른바 '삶의 질의 세계화'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지만, 세계화는 환경파괴를 포함하여 과잉경쟁의 유도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자본을 가진 자만이 경쟁에서 유리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Martin & Schumann, 2003, 14).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앞지르면서 빠르게 과급되어가고 있는 지구적 위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과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60억 명의 인구 중에 (26억 명에 해당하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고, 5분의 1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7년의 보고서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몇몇 수치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0년과도 같은 수치이다. 심지어 그간 급속한 성장으로 빈곤층이 많이 감소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하루 2달러 미만 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7년 21억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Immel, 2009, 66-68).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가되는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도 성장의 모든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임을 보여준다(이주명, 2005, 66). 전체로서의 일반사회의 이익보다는 특권적인 개인들의 욕망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국가 내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20년간의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 20년간의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성장률의 하락폭이 컸다는 것이다(이강국, 2007, 77). 즉, 자유화나 개방과 같은 세계화의 진전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줄인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개도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 개방과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실패한 채 여전히 가난의 탓에 빠져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가 빈부격차를 야기 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재기, 2004, 60). 정보의 활용 정도가 부(富)로 직결되면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콜린스(Collins, 2012)에 따르면, 오늘날 상위 1%와 99%는 단순하게 정반대 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행 우주에 살고 있다고 한다. 불평등은 계층

간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안정과 성장에 막대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파괴한다. 결과적으로는 불신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여 사회 단결과 연대가 깨지게 된다. 즉,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가속화시켜, 한 사회 내에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계층 간·지역 간·국가 간·종족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무한경쟁의 심화를 들 수 있다. ‘경쟁’이라는 단어는 어의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경쟁의 논리가 기술적인 진보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데,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익집단이나 정당 간의 열띤 경쟁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Group of Lisbon, 2000, 10). 그러나 나라마다 사회와 경제의 상호 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강화될수록 경쟁의 파급 효과는 더욱 확산되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함께 추구한다’라는 의미의 경쟁 개념이 ‘승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이다(Group of Lisbon, 2000, 136).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쟁은 곧 상대의 이익을 빼앗는 과정이다. 더 이상 경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경쟁 그 자체가 범세계적인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Group of Lisbon, 2000, 11-12). 세계화 추세는 금융, 산업, 소비자시장, 정보통신, 서비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쟁을 통해 승패가 갈려야 한다는 것은 비단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조차도 매우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경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쟁 논리는 때때로 인류 사회의 발전에 있어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의 다양한 구성들을 배타시키고 오로지 경쟁을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경계할 필

요성이 있다. 아무리 사회가 세계화가 된다 하더라도 경쟁만이 유일한 가치 체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시장 경쟁 논리를 사회·문화·정치 등 다른 분야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 세계화는 규제된 경쟁에서 초경쟁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 속에서의 모든 것은 경쟁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도록 강제하고 있다. 초경쟁화는 공간적 재조직화를 포함하는 생산의 재구조화를 동반하며, 이것은 기술 진보와 국가 정책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로서 금융, 무역, 노동, 지식과 정보, 소비재, 그리고 여타 문화상품 등과 같은 세계적 흐름이 가속화된다(Mittelman, 2000, 17-18).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초경쟁은 사회 갈등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문화의 균질화를 들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문화는 개인적 삶의 부차적인 영역이 아닌 중심적인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이재기, 2004, 39). 아스머와 슈바이처(Osmer & Schweitzer, 2005)에 따르면, 지역 문화를 상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문화적 균질화(homogenization)로 몰고 가는 세계화의 압박이다. 이 같은 경향은 국제 소비문화의 출현, 서구 생활양식의 소개, 합리적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세계화의 문화적 흐름은 세계 경제에 성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화를 더욱더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부모와 지역 문화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가치와 신념 및 생활 유형을 접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이처럼 문화의 균질화에 대한 걱정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18-19세기에 세계사회라는 것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꿈과 함께 등장하였다. 대서양 너머 미국에서의 문화 산업이 점점 더 퍼져감에 따라 1930년대에 프랑스와 유럽의 많은 지식인, 작가, 예술가들은 사회의 '미국화'를 경고하기도 했다(Allemand & Ruano-Borbolan, 2007, 15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생활양식·가치·규범 등의 전파가 개도

국·후진국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서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저질문화가 이들 국가들의 청소년층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부정적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의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제3세계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문화제국주의’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킨첼로(Kinckeloe, 2004)는 ‘맥도널드화’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를 예로 들면서, 맥도널드에서 파는 것은 햄버거가 아니라 맥도널드에 대한 경험이며, 그것은 초국적 자본의 치밀한 문화교육을 통해 세계화된다고 한다. 문화의 잠식은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 붕괴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적 측면은 사회를 획일성으로 이끌려는 지배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저항이 충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계화는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되었으며 이윤의 창출을 위해 자원을 소모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들이 요청된다. 피터스(Peters, 2004)는 나쁜 세계화로 치닫는 영향에 대해 멈춤이 필요하며 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세계화는 숨 가쁘게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못하는 맹목적인 논리들을 내걸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대안으로 경쟁과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를 이루어가려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울프(Wulf, 2013)에 따르면, 세계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평화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되었고, 평화의 생성 및 유지는 개인의 생존과 세대(generations)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연관된 중요한 의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국내외 사회를 막론하고 평화는 인간 생활의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실 언어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의 핵심은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 상태를 넘어서 인간 삶

의 다양한 차원에서 조화와 공존의 상태를 이루는데 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인간이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조화와 공존의 상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평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화문화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평화역량

1. 평화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접근

구약성서에서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shalom)이다. ‘샬롬’(Shalom)의 기본적인 의미는 완전성(completeness) 혹은 총체성(wholeness)인데, 구약성서의 샬롬은 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샬롬은 만남의 기본 형식인 ‘인사’라는 구체적 행위로서 나타난다. 유대적 이해에서 인사는 타자의 삶과 공동체의 경험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Huber & Reuter, 1997, 48-49). 또한 샬롬은 어떤 하나의 평형상태나 객관적 질서가 아니라 ‘과정’(process)이다. 리드케(Liedke, 1986)는 평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과정’이란 세계의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평화라는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샬롬은 ‘정의’를 필수적 요소로 포함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사 48:22)”,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시 85:10)”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예언자들은 사회정의의 전파자였으며 억압에 근거한 안정을 거짓된 평화라고 저주했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 2007)에 따르면, 샬롬이란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다. 이때 샬롬은 단지 적대감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샬롬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런 관계들을 누리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스토티(Stotts, 1973)는 샬롬이 하나님, 인간, 동료인간 그리고 자

연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생태계를 드러내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적절한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다. 따라서 살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누리는 것, 자기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누리는 것, 동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자신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평화는 헬라어 ‘에이레네’(eirene)로 표현되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로 고백된다. 예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은 황제의 권력에 기반한 ‘팍스 로마나’와는 다르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마 5:9).”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실현한 분으로서 ‘우리의 평화(엡 2:14)’의 구현자인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께서는 증오의 핵심적 근원을 이기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며, 또 이웃과 만물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세계교회협의회, 2013, 32-33).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새로운 창조의 살롬을 주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해를 살펴보면, 먼저 본회퍼(Bonhoeffer, 2010)는 기독교 평화운동의 선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평화를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자 투쟁하다가 순교하였다. 본회퍼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공헌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에 있다. 본회퍼의 평화사상은 성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론적이며 교회론적인 기독교 평화사상으로서 예수의 산상설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군비와 무기 확장, 안전보장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기도와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갈 것을 호소하였다(Bonhoeffer, 2010, 158-164). 본회퍼(2010)는 십자가 신학을 근거로 한 제자직의 평화론을 설명하며, 제자직에로의 부름은 예수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십자가에 달리

신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결속되고 제자적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본회퍼(2010)의 평화사상은 그의 대리사상과 책임윤리에 근거하는데, 대리(Stellvertretung)와 책임(Verantwortung)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만 존재한다. 이 같은 대리와 책임은 본회퍼 신학사상의 핵심개념이면서 평화사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몰트만(Moltmann, 1990)은 정의의 열매가 평화라는 입장에서, 정의의 실천을 통한 평화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시 103:6)”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를 세우는 정의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보응의 정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희생자들을 위해 공평을 세우시는 정의이며, 가해자들을 바르게 고치시는 정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의를 통해 하나님은 “살림”이라는 평화를 창조하신다.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에 의하면, “원수사랑”은 가장 완전한 이웃사랑의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완전한 정의의 형태이다(Moltmann, 2014, 77). 원수사랑은 이 세상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우리가 경험한 원수관계를 보복이나 자기 파괴를 통해 지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우리 안에서 스스로 먼저 극복하고 나서 원수 안에서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 미움과 복수와 같은 격양된 에너지를 생명과 평화를 창조하는 정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원수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원수관계의 변용(變容, Transformation)이다(Moltmann, 2017, 371). 이 길은 평화를 세우는 자들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곧 원수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볼프(Volf, 2012)에게 있어 ‘평화’는 단순한 접촉의 부재로 인해 지탱되는 적대감의 부재를 훨씬 넘어서고, 이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 사이의 사귀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용서를 넘어 그러한 사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볼프(2012)는 인류의 폭력과 갈등, 비평화의 근본적 원인을 정

체성 및 타자성의 문제로부터 찾는다.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연결된 이음새를 잘라내어 극단적인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문제들이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볼프(2012)가 주장하는 포용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의 영원한 포용 안에 공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위격들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타자인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따라서 십자가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불의와 기만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포용이다(Volf, 2012, 466).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의와 진리를 붙들어 오셨고 이후로도 그러시리라는 지식 속에서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흡수하고자 하는 태도임을 가르쳐준다.

2. 세계화 시대의 평화역량

기독교의 평화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존재 혹은 행동 양식이므로 교육의 근본 주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 현재화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다(고용수, 2007, 73-74). 따라서 기독교 평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방향성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맺고 있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관계를 맺으며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역량’(capability)이라는 개념은 누스바움(Nussbaum, 2011)에 의하면,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의 선택 가능한 조합을 가리킨다. 그녀는 역량(capability)을 능력(ability)과 구분하는데, 역량은 선천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교육을 통하

여 습득하고 배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의 개념을 평화와 연결해보면, “평화역량”(peace capability)은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하여 평화적 관계들을 맺고 평화적 인간을 양성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평화역량인 “평화감수성”은 ‘평화’와 ‘감수성’이 합쳐진 용어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한다. 먼저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수성(感受性)의 감(感)은 보통 ‘생각’이나 ‘느끼는 마음’을, 수(受)는 ‘받아들임’을 뜻한다. 단어가 내포한 뜻으로 볼 때 감수성은 느끼고 받아들이는 성질, 마음을 움직이거나 연계 하는 능력, 깨우치고 대응하는 성질, 느낌이 통하여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감수성의 의미로는 ‘느끼고 받아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감수성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축적으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한편 평화 문제의 내면화는 비평화적 상황에 있어 비참함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공감하며 이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타 존재의 고통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려는 정서적 반응이며, 타 존재의 문제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련성이 있다(이인정, 2019, 9). 타 존재가 직면한 비평화적 상황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려면 그에 걸맞은 정서적 반응이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바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감수성인 것이다.

이처럼 평화감수성이란 반평화적 상황에서 오는 고통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정서적 자각이다. 소극적 의미에서는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역량이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문화적, 사회구조적 폭력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노희정, 2018,

198). 더 나아가, 평화감수성은 평화와 관련된 자극을 접했을 때에 그 자극에 대해 받아들이고 주어진 틀에 의해 반응 또는 자극을 해석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감으로써, 비평화적인 상황을 평화로 변환시키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힘인 것이다.

두 번째 평화역량은 “비폭력 의사소통”이다. 몰트만(1990)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정치에서 폭력과 지배를 비폭력적으로 극복하는 정치가 창출된다. 적대와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인 평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 몰트만(2017)은 폭력을 다루는 기독교의 두 가지 전통을 논의하면서 ‘용을 죽이는 성(聖) 게오르그’에서 ‘용을 길들이는 성(聖) 마르타’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용을 죽이는 자는 콘스탄틴적 전환 이후에 폭력(권력)을 이용하여 용(폭력)을 제압하는 전통을 뜻하고, 용을 길들이는 성 마르타 전통은 친구-적 관계를 극복함으로써 폭력이 생명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비폭력적 평화창조라는 것이다. 윈크(Wink, 1992)는 복음이 가져오는 ‘평화’는 충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돌의 중심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적인 확신을 뜻하는 것이기에, 비폭력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런 평화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의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개념을 제시한 하버마스(Habermas, 1979)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에 대한 상호배려와 존경, 그리고 대화참여자 사이의 평등한 권리의 인정이라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개방적 상호의존성과 평등성을 전제하는 대화의 모형은 비폭력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그 표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전체 세계와 그 사람을 들음으로써, 타인 삶의 세계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깊고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화를 이루는 철학이자 방법인 ‘비폭력’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결합한 “비폭력 의사소

통”을 평화 실현을 위한 역량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 평화역량인 “평화 상상력”에서 먼저 ‘상상력’에 대해 살펴보면, 어원 ‘imago’는 복사, 유사성, 모방을 지칭하는데, 단순히 모방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는 능력, 즉 현재의 즉각적 상황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고 기술하는 능력을 일컫는다(Casey, 1976, 67). 존슨(Johnson, 2008)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지닌 도덕적 동물이며, 의미와 이해, 사유, 의사소통에 있어 상상력의 역할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고츠키(Vygotskii, 2014)는 상상에 대해 현실적인 생각과 대비되는 독립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생각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체계임을 강조한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버(Niebuhr, 1963)는 신을 나타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계시이며, 이미지, 은유, 상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성경은 역사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성스러운 신화적 이야기와 은유적으로 표현된 상징적인 담화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예수도 많은 비유와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방식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셨다. 그것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초대하시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 상상력에 대해 기술해 보면, 폭력적 상황을 전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서술하여, 갈등과 폭력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상상적으로 식별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의 편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평화 상상력은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폭력이 아닌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역량인 것이다.

IV.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둔 기독교 평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전쟁의 부재와 같은 소극적 평화개념과 사회정의의 실현과 같은 적극적 평화개념을 넘어 하나님·개인·공동체·자연과 관련한 통전적인 평화개념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평화교육은 그동안 성서 전통과 교회사의 중심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20세기 이후 역사적 평화교회 즉, 퀘이커(Quaker)와 메노나이트(Mennonite) 같은 소종파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평화교육 운동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적 구조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복음의 본질로서 평화를 강조하며 학교를 설립하고,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발전에 주력하는 등 구체적인 평화의 실천을 지향해왔다. 더불어 20세기 이후에 에큐메니칼의 대표적 조직인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교회의 평화운동을 이끌어왔음을 볼 수 있다.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고 능동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 관계회복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평화교육의 목적은 전 지구적인 비평화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역량”(peace capability)을 강화하여 나 자신, 타인,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평화적 관계들을 이루어 감에 있다. 김현숙(2000)은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개인주의화, 구조적 분화, 문화적 다원주의를 제시하며, 이러한 특징들이 현대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한 후, 그 영향 아래 요청되는 자아형태와의 관련성 속에서 세 가지 원칙인 관계성(relationality), 평등성(equality), 개방성(openness)을 설명한다. 탈인습적 기독교인의 자아정체감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 요청되는 평화역량들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의 구체적 목표로는 세 가지 평화역량, 곧 관계적 역량으로서의 평화

감수성, 평등적 역량으로서의 비폭력 의사소통, 개방적 역량으로서의 평화 상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곧 평화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나 자신, 타인,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평화적 관계들을 이루는 평화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탈인습성의 원칙 곧 평등성, 관계성, 개방성과 관련된 역량들로,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이 요청된다.

1. 관계적 역량으로서의 평화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

평화감수성은 반평화적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정서적 자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역량이자 문화적, 사회구조적 폭력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또한 평화와 관련된 자극을 접했을 때에 그 자극에 대해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감으로써, 비평화적인 상황을 평화로 변환시키려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힘인 것이다. 즉, 평화감수성은 평화지식과 평화능력을 연결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기로, 평화문제의 내면화라는 감성적 반응과 평화 실현의 조건 탐구라고 하는 지적 사고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요소로서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의 확립, 공감 그리고 환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평화감수성은 올바른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현숙(2000)에 의하면,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자연발생적 신체적·정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일관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을 유지하려는 상징적인 구조를 지

칭한다.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관점 및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올바른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관계형성 능력인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핵심 역량 중의 하나이다. 호프만(Hoffman, 1981)은 공감을 다른 이들에 대한 대리적인 반응, 즉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상황에 대한 감성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생물학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인간의 성향이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이끌며 또한 도운 후에 기분 좋게 느끼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유영권(2015)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는 능력,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판단하지 않고 그 고통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다. 이처럼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과 더불어 그에 대한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반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 및 세계와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관계적 역량으로서의 평화감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평화감수성을 형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환대”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있어 세계를 향하여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을 상징한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낯선 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낯설음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이야기들(창 18:1-15; 왕상 17:9-24; 눅 24:13-35)은 낯선 사람을 영접하는 것, 즉 환대가 매우 중요한 의무임을 알려준다. 러셀(Russell, 2009)에 따르면, 환대란 “차이를 긍정하고 환영하는 수용과 포용의 태도로 차이를 넘어서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환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환대의 실천은 연령, 인종, 성별, 문화, 언

어 등의 차이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차이를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평화감수성은 차별과 차이, 고립과 배제를 넘어 모든 낯선 이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근거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평화감수성 교육은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확립, 공감, 환대를 통해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예민함과 평화에 반하는 요소와 구조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민감함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시대적인 아픔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평화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적 노력을 통하여,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일구어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평등적 역량으로서의 비폭력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교육

해리스와 모리슨(Harris & Morrison, 2011)에 따르면, 비폭력은 철학이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비폭력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생활방식으로서 다루어져 왔고, 그 뿌리에는 인간변형(human transformation)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깔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수준에서도 사회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내적 변화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허버마스가 제시한 대화의 모형은 비폭력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루는 철학이자 방법인 ‘비폭력’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결합한 ‘비폭력 의사소통’을 평화역량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데, 이때 존중과 배려가 그 기반이 된다. 상호 간의 인격적인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비폭력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입장·관점·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내 기준으로 파악하고 비난하는 대신 내 생각이 내게 중요한 만큼 상대방에게

는 상대방의 입장이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참아 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름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뜻한다. 이는 꼭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이나 거부감을 내세우기 전에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권(2015)은 자기애적 성향에서 벗어나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에게도 다 같은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 욕심이나 적대감,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구원사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존중의 노력이 밑받침될 때, 다름은 관계와 공동체가 발전하는 에너지이자 다양한 색깔을 창조하는 재산이 될 수 있다.

한편, 나딩스(Noddings, 2002)는 ‘배려’를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배려의 도덕적 가치와 배려의 윤리적 특성, 정당성 등을 밝혔다. 배려는 타자 즉 피배려자를 포함하는 관계이며, 배려자와 피배려자는 상호적으로 의존한다(Noddings, 1984, 57-58). 배려의 관계는 나의 배려 노력을 수용할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며 세상에 도덕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으로, 배려 받는 자에게 응답하려는 특징이 있다. 배려의 관계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철학적 경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실제 도덕생활에 직면하게 한다. 내가 얼마나 선행될 수 있는지는 적어도 타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부분적으로 달려있다. 배려윤리는 비록 우리가 배려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진정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경청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비폭력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교육은 갈등과 폭력의 상황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비폭력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극복하고 오히려 생명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 의사소통은 하나님

의 사랑으로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 갈등을 해결하는 기독교 평화 개념과도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상호적·공유적 이해를 지향하는 비폭력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과 세상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며 배려의 관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인격적 만남과 평화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개방적 역량으로서의 평화 상상력을 증진하는 교육

세계화 시대의 비평화적 현상들로 발생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평화 상상력’이 필요하다. 평화 상상력이란 폭력적 상황을 전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면 폭력적 상황을 전도시키기 위해 비폭력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데, 그 방식은 직접 참여를 통하여 이성적이고 창의적이며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비폭력적 문제해결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다(로마서 12:14-21).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예수는 단순히 인내심이나 불의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창출함으로써 폭력적인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평화적인 힘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적이 아닌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상황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 상상력’이다. 중요한 것은 공격당한 자가 ‘폭력에는 폭력으로’라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다른 사람을 연대의식으로 초청하는 행동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Wengst, 1987, 68-71). 우리가 추구할 것은 원수의 종말이 아닌 증오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현장은 평화 상상력이 분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평화적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화 상상력을 연습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변화

를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더락(Lederach, 2005)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관계와 관계의 이해를 새로운 단계로 상승시키는 힘을 '역설적 호기심'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복잡한 사회 역사와 구조화된 현실을 인위적인 이원적 범주로 몰아세우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복잡함에 마비되지 않는 역설적 호기심은 복잡함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는 것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설적 호기심은 사회적 양극화로 가득 찬 뿌리 깊은 폭력의 상황에서 복잡함에 힘입어 폭력의 굴레를 양산하는 이원적 분리라는 역사적 뒷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규율이기도 하다(Lederach, 2005, 87). 이는 눈앞의 논쟁과 좁은 의미의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험하는 영원한 궁금증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역설적 호기심은 평화 상상력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래학자인 보울딩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미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현재 존재하는 것과 다르고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Jenkins, 2013, 177).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상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평화구축의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상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 차원에서 주어지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넘어서서, 비가시적이고 비감각적 차원의 세계까지도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주변의 사물을 변용하고 형성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변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우한용, 1998, 69). 이처럼 상상하는 존재로서 그 능력을 평화에 초점을 두고, 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화 상상력을 증진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상의 작용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실천의 용기를 가지게 된다. 즉, 가능성이란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원료와 같은 것으로서, 이로부터 내가 더 선호하는

미래가 설계되고 평화를 이룩하며 희망이 고무될 수 있다. 미래의 평화에 대해 계획하고, 평화의 지속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모델을 구성하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이슈의 분석과 문제 해결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이삼열, 2003, 159). 개방적 역량으로서의 평화 상상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통하여 폭력적 상황을 전도시킴으로 새로운 상황과 관계를 창출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들로 인해 야기되는 평화 부재의 상황들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토대로 대안적인 기독교 평화교육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경제적 빈부 격차, 인종차별, 환경오염, 핵전쟁의 위기와 테러, 약소국을 향한 강대국의 억압과 착취 등 모두가 평화롭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평화를 향한 갈망과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독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평화교육의 성서적·신학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성서적 이해에서 평화는 인간의 신체와 영혼, 공동체, 집단, 자연, 즉 인간이 맺고 있는 전 관계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총체적 관계망 가운데서 구현된다. 평화에 대한 현대 신학적 접근에서 분회퍼는 기독교인의 책임윤리로서 평화를 강조하였고, 몰트만은 정의의 실천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였으며, 볼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포용

으로서의 평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세계화 시대의 비평화적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독교가 보유하고 있는 평화의 신앙전통을 활용한 기독교 평화교육을 역설하고, 이에 필요한 평화역량, 즉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을 제시하였다. 평화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요소로 자아정체감의 확립, 공감과 환대를 들 수 있으며, 평화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예민함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하는 비폭력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교육은 갈등과 폭력의 상황 속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의 대응으로 폭력을 극복하고 오히려 생명의 힘으로 변화시키며 인격적 만남과 평화의 문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평화 상상력을 증진하는 교육은 폭력적 상황을 전도시킴으로 새로운 상황과 관계를 창출해내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계화 시대에 있어 요구되는 평화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평화역량들을 함양하고, 탈인습적 기독교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세계화 시대의 사회와 교회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역량, 즉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은 나 자신, 타인,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평화적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고용수 편 (2007). **평화와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김현숙 (2000). 후기 현대 사회와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 **신학논단**, 28, 283-303.
- 노희정 (2018).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초등 통일교육의 방향. **초등도덕교육**, 62, 193-213.
- 세계교회협의회 (2013). **정의로운 평화 동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우한용 (1998). 상상력의 작동구조와 상상력의 교육. **국어교육**, 97, 67-90.
- 유영권 (2015). 한국교회의 소통과 공감 능력에 대한 분석과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42, 47-71.
- 이강국 (2007). **가난에 빠진 세계**. 서울: 책세상.
- 이삼열 (2003).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파주: 한울.
- 이인정 (2019).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2, 1-24.
- 이재기 (2004). **세계화·WTO·FTA 포커스**. 서울: 한울출판사.
- 이주명 (2005).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서울: 필명.
- 장산근 (2007). **공직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Allemand, S. & Ruano-Borbolan, J. (2007). **세계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승리인가**. 김태훈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원저 2002 출판)
- Beck, U. (2000). **지구화의 길**. 조만영 역. 서울: 거름. (원저 1997 출판)
- Bonhoeffer, D. (2010). **나를 따르라**. 손규태·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37 출판)
- Bonhoeffer, D. (2010). **윤리학**. 손규태·이신건·오성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49 출판)
- Casey, E. S. (1976). *Imagining: A phenomenological study*. 2nd ed.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Collins, C. (2012). **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이상규 역. 서울: 이상. (원저 2012 출판)
- Giddens, A. (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나무. (원저 1998 출판)
- Giddens, A. (2006). *Sociology*. 5th ed. Cambridge: Polity Press.
- Group of Lisbon. (2000). **경쟁의 한계**. 채수환 역. 서울: 바다출판사. (원저 1995 출판)

-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trans. Thomas McCarthy. Boston: Bencon Press.
- Harris, I. M. & Morrison, M. L. (2011). **평화교육**. 박정원 역. 서울: 오름. (원저 1988 출판)
- Hoffman, M. 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21-137.
- Huber, W. & Reuter, H. (1997). **평화윤리**. 김윤옥·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0 출판)
- Immel, K. (2009).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서정일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원저 2007 출판)
- Jenkins, T. (2013). The transformative imperative: The national peace academy as an emergent framework for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10(2), 172-196.
- Johnson, M. (2008). **도덕적 상상력**. 노양진 역. 파주: 서광사. (원저 1992 출판)
- Kincheloe, J. L. (2004). **버거의 상징: 맥도날드와 문화권력**. 성기완 역. 서울: 아침이슬. (원저 2002 출판)
- Lederach, J. P. (2005). *The mor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edke, G. (1986).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사상**, 30(12), 140-148.
- Martin, H. & Schumann, H. (2003). **세계화의 뒷**. 강수돌 역. 서울: 영림카디널. (원저 1996 출판)
- Mittelman, J. H. (2000). *The globalization syndrome: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ltmann, J. (2014).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김균진 역.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 Moltmann, J. (1990).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 안명옥 역. 왜관: 분도출판사. (원저 1989 출판)
- Moltmann, J. (2017).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10 출판)
- Niebuhr, R. (1963). *The responsible self*. New York: Harper & Row.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ddings, N. (2002). **배려교육론**.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서울: 다른우리. (원저

1992 출판)

-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Osmer, R. R. & Schweitzer, F. L. (2005).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연세기독교교육학 포럼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2003 출판)
- Peters, R. T. (2004). *In search of the good life: The ethics of globalization*. New York: Continuum.
- Robertson, R. (1992). *Globa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Russell, L. M. (2009). *Just hospitali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Stotts, J. L. (1973). *Shalom: The search for a peaceable city*. Nashville: Abingdon Press.
- Volf, M. (2012).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1996 출판)
- Vygotskii, L. S. (2014). **상상과 창조**. 비고츠키 연구회 역. 서울: 살림터. (원저 1930 출판)
- Wengst, K. (1987). *Pax romana and the peace of Jesus Christ*. London: SCM.
- Wink, W. (1992).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Wolterstorff, N.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출판부. (원저 1983 출판)
- Wulf, C. (2013). Human development in a globalized world, education towards peace,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vista Espanola de Pedagogia*, 71(254), 71-86.

Abstract

Christian Peace Education to strengthen Peace Capabilities

Miyoung Cho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odel for Christian peace education request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ncreases interdependence and unifies the global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systems. The world is currently experiencing a period of unlimited competition without borders. Globalization has promoted growth and development, but has also caused problems. In the face of this absence of pea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peace and peace education can serve as a way to overcome the challenges facing modern society and to meet people's desire for peace.

It examines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absence of peace due to problem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examines the concept of peace and peace educ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fter that, the concept of Christian peace requir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peace capability to be strengthened in peace education will be presented, and how to proceed. The christian peace education model strengthens students' peace capabilities which can be used to build a peaceful future world. The purpose of christian peace education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is to develop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oneself, others, the world, and the environment. The goal of christian peace education is to cultivate peaceful human beings by strengthening their peace capabilities, namely peace sensitivity,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peace imagination.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hat it presented an christian peace christian education model that strengthens learners' peace capabilities through a biblical and theological approach in the face of non-peaceful situations arising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 **Keywords** 》

Globalization, Christian peace education, Peace capability, Peace sensitivity, Nonviolent communication, Peace imagination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